

고려해운 ...

내년부터 주5일 근무시행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노사합의에 따라 2005년 1월1일부터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고려해운은 현재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제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종업원 300 인 이상 사업체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으며 고려해운은 이에 해당됨)

고려해운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으로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고 자기 개발 기회가 한층 많아짐으로써 회사 생산성,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내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 및 문제점에 대비하여 고려해운은 새로운 IT SYSTEM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고객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주해운 ...

'E- EXPRESS'호 취항

범주해운(대표 이상복)은 지난 11월26일 작년 6월에 발주한 826TEU급 신조선에 대한 취항식을 대선조선 안벽에서 고객, 대선조선을 비롯한 협력업체, 왕상은 회장 이하 협성 관계회사 임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날 취항한 EASTERN EXPRESS호는 1만 2,300DWT(8,800G/T), 전장(길이) 143m, 폭 20.6m, 흘수(Draft) 7.4m로 17Knot의 속도에



826TEU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으며, 특히 항만에서 선박의 조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BOW-Thruster가 장착되었다.

이 선박은 2003년 6월13일 신조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12일 강제절단, 2004년 5월27일 착공식을 거쳐 2004년 8월21일 진수 하였으며 11월24일 범주해운에 인도 되어 이날 한중일 팬드럼 항로에 투입됐다.

이로써 범주해운은 작년에 구입한 700TEU급 Ocean Express와 함께 일본의 게이힌 지역과 부산, 울산, 중국의 상해, Ningbo를 연결하는 한중일 팬드럼 서비스, 586TEU의 Pancon Express로 부산과 중국 청도, 연태항로, 342TEU급의 Asia Express로 부산과 일본 한신 지역 항로에 자사 선박을 투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장금상선 ...

상록초등학교와 자매결연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11월22일 소설가 심훈 선생의 상록수 무대인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상록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상록초등학교 강당에서 당진군 교육청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자

매결연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청소년들의 해양 사상 고취를 위하여 항만별로 연고가 많은 해양 수산 업·단체와 벽지초등학교간에 인연을 맺게 함으로써, 기업의 지역사회 이익환원 내지 청소년에 대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록초등학교는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야학당의 전신으로서 분교를 포함한 전교생 약70여명의 소규모 학교이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서, 학교측은 "바다 옆에 있는 학교이지만 사실 바다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면서 장금상선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갖는 미래의 인재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사를 대표하여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한 장금상선 정병주 상무는 "자매결연이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 끈끈한 인연을 가지면서 같이 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 썸머타운그룹

### 승진 및 전보인사

썸머타운그룹(회장 임병석)이 11월18일 그룹 내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썸머타운그룹은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된 (주)진도의 법정관리가 종결(11월 15일자)되는 등 그룹 체제가 갖춰진 것을 계기로, 그룹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전사적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썸머타운그룹은 올해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주)한리버랜드와 컨테이너 및 모피의류 제조업체인 (주)진도를 인수했으며 이와함께 증경건설업체인 (주)우방 인수를 위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마무리 인수작업을 추진중이다.

계열사로는 썸머타운해운(주), 세양선박(주), (주)진도, (주)한리버랜드, 황해훼리(주), (주)필그림해운 등이 있다.

[ 썸머타운해운 ] △승진 이사대우 그룹 감사실장 임종정(林鍾丁), 기획관리팀장 김태경(金泰敬) △전보 재무담당 성길용(成吉庸) 상무

[ 세양선박 ] △전보 재무담당 김윤기(金允基) 전무

[ (주)진도 ] △신임 철강사업본부장 박택춘(朴澤春) 전무 △승진 컨테이너본부장 박기조(朴基兆) 전무, 의류본부장 정승섭(鄭承燮) 상무, 기획총괄본부장 김종철(金鍾喆), 중국지사 상해공장 공장장 조인배(趙仁培) 이사, 컨테이너관리팀장 최주열(崔柱烈), 컨테이너영업팀장 최선규(崔善奎), 런던사무소장 장동춘(張東春), 의류상품기획팀장 황종유(黃淙裕), 의류영업1팀장 김용연(金容淵), 총무팀장 박영길(朴永吉), 홍보공시팀장 김철호(金哲鎬), 중국지사 광주공장 공장장 이영섭(李英燮), 중국지사 대련공장 공장장 황종태(黃宗泰) 이사대우 △전보 물류본부장 김종진(金鍾鎭), 재무본부장 박준호(朴俊浩) 전무, 법제홍보총괄본부장 임준섭(林俊燮), 재무본부 금융회계 담당임원 허순철(許淳喆) 상무, 기획총괄본부 기획팀 담당임원 황화연(黃化淵) 이사, 의류영업2팀장 배보한(裵輔漢) 이사대우

## STX Pan Ocean

### 조직 10본부 54팀으로 개편

STX Pan Ocean(회장 강덕수)은 12월1일부로 기구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승진인사 및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 조치에 따라 Pan Ocean 본사는 3총괄 7본부 1원 1실 21부 49팀 1중대에서 3총

팔 10본부 21부 54팀으로 개편되었으며 국내지점소는 2지점 1사무소 체제에서 2지사 1사무소 체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번 인사조치에 따라 추성엽상무가 전무로 승진하여 영업1총괄을 맡았으며 배선령 부상무가 상무(상하이 사무소장)로, 서충일 부상무가 상무(자동차선영업본부)로, 이일연 부상무가 상무(정기선영업2본부장)로 각각 승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권순성 부장이 부상무(카오슝 사무소장)로, 이승원 부장이 부상무(부정기선영업본부장)로 각각 승진했다.

인사이동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2총괄에는 이상문 전무, 컨테이너선 영업본부장에는 송영문 상무, 대형선영업본부장에는 정갑선 상무, 정기선영업1본부장에는 오광학 상무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밖에 운항관리부장이던 변희옥 부상무가 운항기술본부장에 임명되었으며 연수원장 인현진 부상무가 관리본부장에, 그리고 신동선 부상무는 뉴욕지점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STX Pan Ocean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영업 확대 전략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서 기존의 영업부문은 특화시켜 나가고 현재 약한 영업부문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기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n Ocean의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이동은 부서장급 이상만이 대상이 됐다. 나머지 부서장급 이하의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 정기인사에서 일부 부서장과 팀장 인사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임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괄전무 : 영업 1총괄 추성엽 전무(승진), 영업 2총괄 : 이상문 전무 △본부장 : 관리본부장 인현진 부상무, 운항기술본부장 변희옥 부상무, 정

기선영업1본부장 오광학 상무, 정기선영업2본부장 이일연 상무(승진), 자동차선영업본부장 서충일 상무(승진), 컨테이너선영업본부장 송영문 상무, 부정기선영업본부장 이승원 부상무(승진), 대형선영업본부장 정갑선 상무 △기타 승진 및 보직 변경 : 상하이 사무소장 배선령 상무(승진), 카오슝 사무소장 권순성 부상무(승진), 뉴욕지점장 신동선 부상무

### 유코카캐리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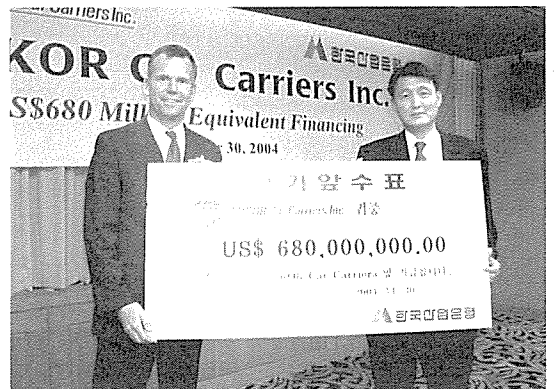
#### 6.8억달러 복합금융

산업은행은 12월1일 자동차 운송 전문회사인 유코카캐리어스에 6억8천만달러 규모의 복합금융 주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번 금융주선을 통해 유코카 캐리어스에 외환, 조흥, 우리, 신한은행, 농협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신디케이트드론 3억8천만달러와 공모회사채 발행대금 3천2백억원이 공급된다고 말했다.

산은은 또 공모회사채로 조달한 3천2백억원을 회사채 발행과 동시에 유코카캐리어스가 필요로 하는 달러로 전환(원/달러 스왑거래)하는 복합금융 방식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산은 김영기 기업금융2실장은 "유코카 캐리어스



의 양호한 신용등급과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이 반영돼 조달금리가 낮아졌다"며 "특히 총주선금액중 일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원화로 조달한 후 달러로 스왑하는 복합금융 방식을 적용해 금리조건을 낮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코카캐리어스는 2002년말 현대상선으로부터 자동차 운송사업부문을 인수한 국내법인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운송 전문회사인 스웨덴의 발레니우스(Wallenius), 노르웨이의 빌 빌헬름센(Wilh. Wilhelmsen),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주요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진해운 ●●●

### 홍콩/싱가포르에서 IR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11월18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4분기 경영실적 설명회(IR)를 가졌다.

시티그룹증권이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는 각 해외 기관 투자자와 일대일 미팅 방식으로 행하여지며, 2004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이 주요내용을 이루었다.

한진해운은 올 3분기에만 매출액 1조3,396억원, 영업이익 2,544억원, 순이익 1,72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실적 개선에 힘입어 총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450%에서 3분기말 307.9%로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

현재 해운 시장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정기선 부문의 운임회복과 중국의 수송물량 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호황은 2005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에도 한진해운을 비롯한 많은 해운선사가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말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도이치 증권이 후원하는 기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회사 가치 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11월19일 여의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CKYHS 얼라이언스의 매니지먼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한진해운을 비롯, 5개 선사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적 제휴인 CKYHS 얼라이언스의 매니지먼트 그룹 간 협력 사안을 협의하는 정기 회의로 우리 회사 박정원 사장을 비롯, 중국 코스콘 의 시 메이스 부사장(Mr. Shi Meisi: Deputy Managing Director) 일본 케이라인의 이누마 요시오 부사장(Mr. Yoshio Inuma: Senior Managing Director) 대만 양밍라인의 로버트 호 부 사장 (Mr. Robert Ho: Executive Vice President) 등이 참석했다.

한진해운은 이 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CKYHS 제휴 선사간 협력 공고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을 상호 확인하고 현안들을 협의했다. 차기 회의는 2005년 1/4분기중, 코스코 주최로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현대상선 ●●●

### 유조선 부문 투자 강화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이 중형유조선 1척과 석유제품선 2척을 도입키로 하는 등 유조선 사업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상선이 이번에 매입하는 중형유조선은 10만5,000톤급으로 조선소에서 건조가 끝나는 2005년 1월 인수할 예정이며, 4만9,700톤급 석

유제품선 2척은 2005년 4월과 7월에 각각 인수하게 된다.

이번 선박 인수에는 약 1,7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대상선은 이를 자체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측은 『이미 건조 진행 중인 선박을 매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신조선을 시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최근 중국 및 유럽지역에서의 석유제품 수입의 증가 등으로 석유제품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해 이들 선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11월 2척의 초대형유조선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을 발주했고, 올 들어 3척의 중고 VLCC를 새로 구입했다.

이로서 현대상선은 이번에 계약하는 중형유조선 및 석유제품선 2척을 포함해 1년 사이에 총 8척의 유조선을 확보하는 등 유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잇따른 선박 확보로 총 18척의 초대형유조선(VLCC)과 함께 중형유조선 2척, 석유제품선 7척 등 총 27척의 유조선단을 거느리게 돼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유조선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대상선 측은 『최근 유조선운임지수인 WS가 3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의 호황 국면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유조선 수급이 타이트해 시황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유조선 등 해운 전 부문의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기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컨테

이너선 11척, 유조선 8척 벌크선 2척 등 총 21척의 선박을 신규 확보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흥아해운 ...

### 회사정리절차 종결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은 11월30일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부산지법은 결정서에서 "흥아해운은 현재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흥아해운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됨에 12월1일 이사회를 열고 이윤재 회장을 대표이사로 추대했다.

## 부산항만공사 ...

### 개항이래 최대선박 기항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는 11월11일 20토요일 오후 1:30분 부산항 대한통운 감만터미널에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가장 큰 선박이 부산항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8,500TEU급 규모로 20feet 컨테이너 박스 8,5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BPA 김성용 부사장은 CSCL ASIA호의 기항 세어모니를 선내 브릿지에서 갖고, 기념패와 화환을 전달하였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

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2월7일 착수하여 내년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용역시행은 (사)시민사회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주)세광엔지니어링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신항만이 개장되면 그동안 부산항 재래부두에서 담당하던 컨테이너 화물을 최첨단 시설을 보유한 신항만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북항지역 재래부두에 대하여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선급(KR) ...

### 항만보안세미나 개최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은 2004년 11월12일(금)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한국항만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정(The 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ISPS Code)의 도입 및 지속적인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항만보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4년 7월1일부터 강제화된 ISPS Code에 따라 수립된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시스템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향후 발전방향까지 항만보안 전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을 비롯한 항만운영과 관계자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의 보안담당이 참석하였고 한국선급에서는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국선급은 선박분야에 대한 ISPS Code 적용방안에 대하여 수년전부터 연구하여 왔으며, 십수 년간의 시스템 인증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시스템의 수립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참여하여 왔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23개국으로부터 선박에 대한 보안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ISPS Code에 따른 항만보안시스템 구축현황'을 통하여 항만보안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국제적인 배경과 우리나라 항만시설의 보안시스템 수립에 사용된 이론적 근거 및 방법 등을 밝히고 항만시설보안평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항만시설보안시스템의 운영, 지정당국의 역할, 당사국정부의 사후심사, 항만시설보안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또 '최근의 미국의 해상보안정책'에서는 미국 USCG 아태지역보안조정관을 초청하여 미국의 향후 해상보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짚어봄으로써 전세계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주한 외국선사 대표자 초청 간담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11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국선사 대표들을 초청, 광양항 활성화 및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양항의 소개와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공단에서 추진중인 선사 불륨 인센티브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선사의 광양항 이용에 따른 컨테이너터미널 현장 관계자(세방기업)의 소리에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정이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항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될 것이며, 광양항 활성화는 국가의 주요정책으로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데 이어 광양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광양항을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한 외국선사 대표들은 질의를 통해 항만시설사용료 지속 감면, 항만보안(ISPS), 선사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공단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앞서 간담회 전날인 11월16일 프레스센터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화물 유치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진 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선화주 대상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 위험물 수출입업체 무료교육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12월16일, 17일 양일간 검사소 서울본부 교육장(웅진빌딩 별관 402호)에서 위험물 제조 및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포장(Packagings, IBCs, Tank Container)형태 위험물에 적용되는 IMDG Code(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가 2004년 1월1

일부터 강제화 됨에 따라 수입국에서는 항만(Port)으로의 위험물 반입에 대한 규정준수 및 통제(CIP: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프로그램)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제조·수출입업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업무지연 및 벌금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서는 국내 위험물 제조·수출입업체 보호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최신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한 중점교육을 실시한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한리버랜드와 상호협력기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한리버랜드는 양기관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체결한 협정서의 주요골자를 보면, 한리버랜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연맹 지도자, 대원 및 이의 동반자 4인 이내의 경우 한강유람선 이용료 30% 할인, 레스토랑 및 식당 이용료 10% 할인 등 이용요금이 할인된다.

이와함께 △한강에서 행해지는 연맹 행사에 대한 한리버랜드의 협조 지원 △연맹의 한리버랜드 유람선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연맹의 한리버랜드의 후원 및 요청에 의한 한강 환경 보존 활동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